

국제유가, 다시 안개속으로...

EU의 이란 원유 금수조치로 ...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

7월1일 유럽연합(EU)의 원유 금수를 비롯한 추가제재 발효를 앞두고 이란의 석유 수출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특히, EU의 추가제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론이 다시 제기되는 등 중동 정세가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 역시 7월1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키로 해 국내 정유·해운 및 이란 수출기업에게 어느 정도 피해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6월26일 EU 제재 발효를 앞두고 이란 석유산업의 타격이 벌써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장했다.

이란이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6개월간 원유 수출이 40%나 줄어 하루 평균 150만배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11년 하루 평균 250만배럴에 달했던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외부의 제재로 이미 120만~180만배럴 수준으로 줄었다는 미국의 최근 추산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이란산 원유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미국의 국방수권법(6월28일 발효)의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원유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U의 추가제재에는 유럽의 보험기업과 재보험기업들이 이란산 석유 수송선박에 대한 보험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금융 제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를 운송하려면 화물·선박 보험과 선주상호(사고배상책임) 보험(P&I)이 필수적이거나 국내 보험사들은 화물·선박 보험은 70-90%, P&I는 100% 유럽 보험기업이나 재보험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EU의 원유 금수가 현실화하면서 2012년 초 이란이 위협하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란의 한 육군장성은 이란의 국익 수호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반관영 ISNA 뉴스통신이 6월25일 밝혔다.

이란은 또 외무부 대변인 정레브리핑에서 EU의 추가제재가 핵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란이 실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세계 원유 운송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는 서방은 물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의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란이 실제 해협을 봉쇄한다면 스스로 고립을 심화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고, 페르시아만 원유 수송로의 안전을 최우선적인 국익의 하나로 고려하는 미국이 군사적 보복 조치에 나서 전면적인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27>